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언어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음성적 변화의 몇몇 지배적 양상 연구*

장 재 성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I

1.1. 현대 불어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는 모든 명사와 형용사가 어미 변화(déclinaison)를 하므로써 현대 불어와 현격한 차이를 갖는다. 현대 불어에서 격 변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언어가 변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도 유럽어족인 라틴어가 현대 불어에 이르기까지의 진화 과정은 종합적 언어(langue synthétique)에서 분석적 언어(langue analytique)로의 점진적인 이행 과정¹⁾이라 할 수 있다.

라틴어의 6격 체계가 고대불어의 2격 체계로 또 현대 불어에서 격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언어 변화 과정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음성적 변화(changement phonétique)이다. 즉 순수 라틴어의 음가가 점점 변질되어 라틴어 특유의 격변화의 변별력을 상실함으로써 라틴어는 전혀 다른 언어인 불어로 진화된다.

로마를 중심으로한 소수 라틴족의 관용어였던 라틴어는 로마의 세력 팽창과 더불어 Gaule을 포함한 광대한 복속 지역에서 그 지방의 관용어를 점차 구축하고 헬라어와 더불어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속된 민족들은 자기 고유의 억양을 버리지 못한 채 라틴어를 발음하게 되어 그들 나름대로 가장 최소의 노력을 들여 편리하게 라틴어를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을 띠게 되고 이것은 라틴어에서 로망어로 진화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여기서는 바로 이러한 음성적 변화의 양상을 지배 음운론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하나의 언어를 완전히 다른 구조의 언어로 변화시킨 출발점은 음성적 변화이다. 이 변화는 주로 1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 이 논문은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 발전기금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이 말은 라틴어의 격 체계가 소멸하므로 해서 라틴어에서는 어미 변화에 의해 표현되던 것이 불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독립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ex) amabantur (latin)=ils étaient aimés (français)

이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중요한 것으로서는, 마찰음화(spirantisation), 유성음화(sonorisation), 구개음화(palatalisation),²⁾ 치찰음화(assibilation), 이중 모음화(diphthongaison)와 어중음 소실(syncope)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여기서는 순수한 모음 변화로서 긴밀한 상관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변화 이중 모음화와 어중음 소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2.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음성적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의 6가지 요인이다.

- 1) 라틴어의 accent
- 2) 단어내에서의 분절음의 위치
- 3) 분절음의 환경
- 4) 변화의 종류
- 5) 변화를 받은 élément(내부구조 structure interne의 변동)
- 6) 변화가 일어난 시기

라틴어의 변화를 유도했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라틴어가 불어와는 달리 단어 내부에 고저 accent(accent de hauteur)를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다.

라틴어가 불어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변화를 주도했던 민족들이 단어의 발음에 심한 변화를 주고 그것을 단순화 시켰어도 라틴어의 발음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즉 accent의 규칙만은 지켰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accent을 가지고 있는 음절(syllabe tonique)은 오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주변의 무강세 음절(syllabe atone)들은 탈락되거나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다.

1.2.1. 라틴어 accent 규칙

i) paroxyton

CV₁CV₂...CV_{n-1}CV_n

모든 라틴어의 accent은 V_{n-1}이 장음일 때는 항상 이 음절위에 accent이 온다.

ii) proparoxyton

CV₁CV₂...CV_{n-2}CV_{n-1}CV_n

2) 이 변화는 중자음화(gémination des consonnes)와 Yod의 삽입(préposition de Yod)이 뒤따르게 된다.

만약 V_{n-1} 이 단음이라면 accent은 이 음절에 놓이지 않고 V_{n-2} 로 이동한다.

그리고 위의 i), ii)가 주강세(accent premier)라고 한다면 부강세(accent secondaire)는 항상 첫음절인 V_1 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음절 수가 하나이거나 둘인 단어의 경우는 첫음절에 주강세와 부강세가 겹치게 된다.

이러한 accent에 따른 분절음의 변화와 소멸을 추적해 가고 있으면 바로 지배음운론의 출발점, 강한 것은 지배하기 위해 더욱 강해지고 약한 것은 지배받기 위해 더욱 약해진다는 논리와 통시적 음운 변화가 일맥 상통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즉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언어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화는 철저하게 이 accent 규칙에 의해 accent이 놓이는 음절은 살아남고 accent이 놓이지 않는 음절은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변이는 필연적으로 단어의 음절수가 줄어드는 어휘의 축소지향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래서 4, 5음절의 라틴어 단어가 불어에서는 2음절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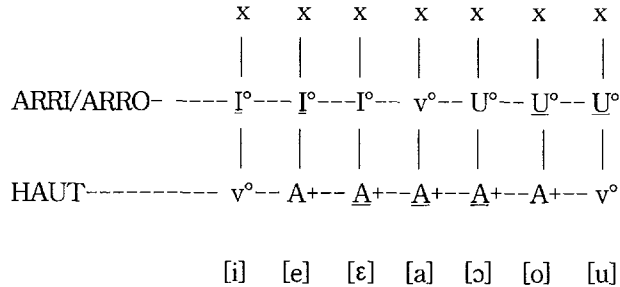
sanitatem > ... > santé
 bonitatem > ... > bonté
 ministerium > ... > métier
 computare > ... > compter

1.2.2. 2)와 3)은 하나의 분절음이 한 단어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또한 주변에 어떠한 분절음이 놓이는가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분절음은 한 단어 내에서 놓이는 위치에 따라 강위치와 약위치가 정해지게 된다. 이것은 아래 도표에서처럼 자음과 모음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i) 모음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accent 규칙에 따라 accent을 받는 위치가 강위치가 되고 accent이 놓이는 음절과 이웃하는 음절들이 약위치가 된다. 또한 첫음절은 항상 강위치가 되고 마지막 음절은 항상 약위치가 되게 된다.

ii) 자음의 경우는 단어의 첫자음과 자음연쇄에서 두번째에 놓이는 자음이 강위치이고 모음 사이에 놓인 자음과 자음연쇄에서 첫번째에 놓이는 자음, 그리고 단어의 마지막 자음이 약위치이다.

vi)⁴⁾

(밑줄 친 élément은 각 분절음의 tête를 나타냄)

2.2.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제 이중모음화(diphthongaison)와 어중음 소실(syncope) 현상에 대해 분절음의 내부 구조의 변동을 분석해봄으로써 그러한 변화의 음운론적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서 한가지 더 언급해 둘 것은 이 두 변화가 속어 라틴어에서 고대불어 시기까지의 변화이므로 대략 1세기에서 9세기의 변화이다.

이중모음화는 accent을 갖는 모음들의 조음적 강세의 수단인 장음화(rallongement)를 포함하게 된다.

2.2.1. 이중모음화는 전설 중저모음 ε로 부터 시작된다.(3세기경)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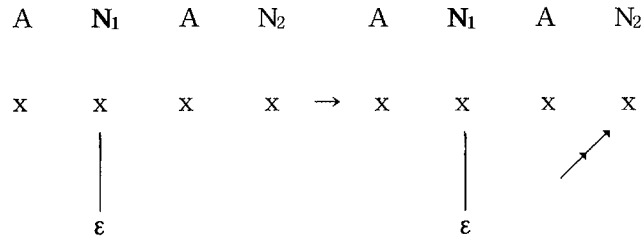
$$\varepsilon > \varepsilon : > \varepsilon\varepsilon > i\varepsilon$$

이 변화는 강세를 가진 열린 음절에서만 일어난다. 라틴어는 위에서 보았듯이 어말에 강세를 갖지 않는 언어이므로 이 변화는 당연히 어두와 어중에서만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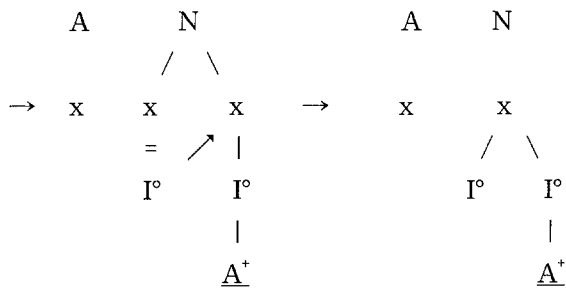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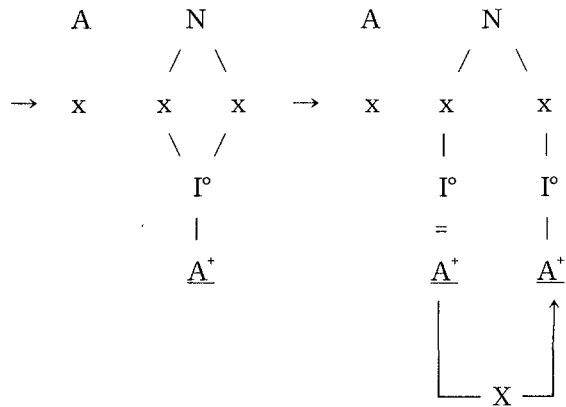
이 변화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자.

4) 속어 라틴어의 모음 체계를 보더라도 현대불어의 모음 체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세한 논의를 할 수는 없지만, 현대불어에서 볼 수 있는 전설 원순 모음이 나 비모음들은 시기적으로 훨씬 후에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비모음들은 12, 13세기에 형성 되기 시작한다.

5) 자음 변화가 대략 기원 전후에 시작하는 것에 비해 모음 변화는 그 보다 3세기 정도 뒤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진하게 쓰여진 N은 단어 내부에서 주강세를 받는 것임)



ex : fērum(ferus) > ... > fi&ero > fj&er
 m&el > ... > mi&el > mj&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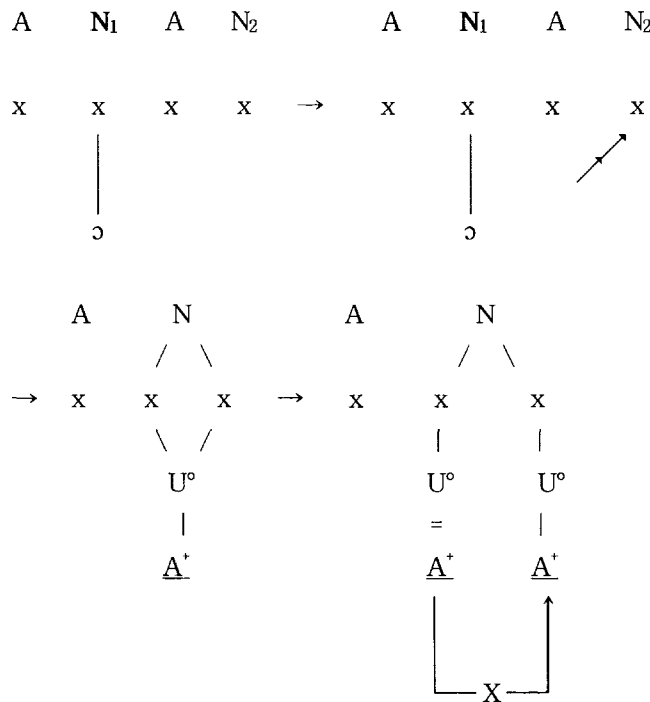
N₁의 ε는 주강세를 받는 모음이므로 장모음화를 겪게되어 N₂로 전파(propagation)된다. 그 후에 이 두 핵은 하나로 융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되어 이화되는데, 융합된 상태에서는 성분내 지배에 해당되며 전자가 후자를 지배해야 하는데 양자가 같은 segment이므로 지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의 접점에서 tête 가 탈락하여 오히려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것은

성분내 지배에서는 élément A⁺가 즉 양성 charme가 tête일때는 확실한 지배의 우위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지배관계 자체가 존립하기 힘들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앞의 접점에 연결된 분절음의 élément 중에서 도식과 같이 양성 charme의 값을 갖고 있는 élément이 탈락되게 된다. 이러한 élément의 소실로 인해서 지배가 불가능하게되어 이 구조 자체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남은 élément이 뒤에 있는 접점으로 전파되어 경이중모음⁶⁾의 구조를 이룸으로써 안정성을 찾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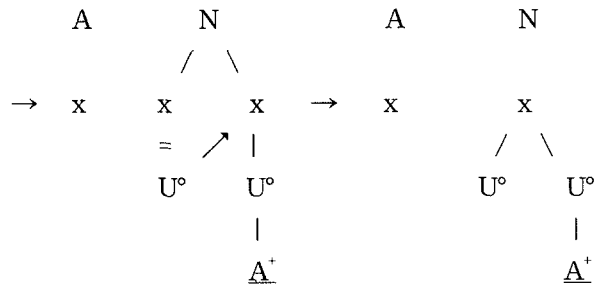
2.2.2. 후설 중저모음 ɔ도 같은 환경에서 이중모음화 된다.(4세기경)

$$ɔ > ɔ: > ɔɔ > uɔ$$

이 때는 첫 요소가 같은 후설 고모음인 u로 변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2.1.1과 변화의 양상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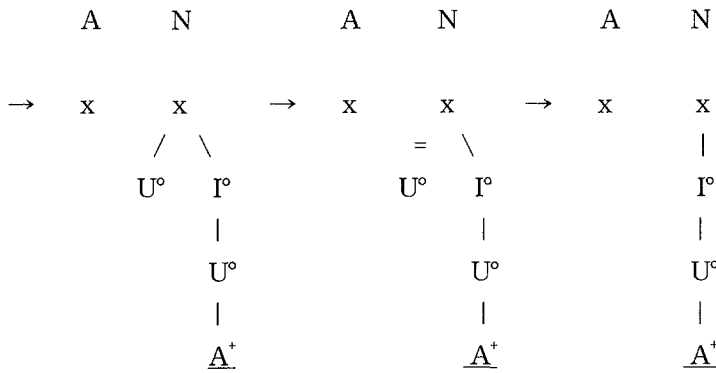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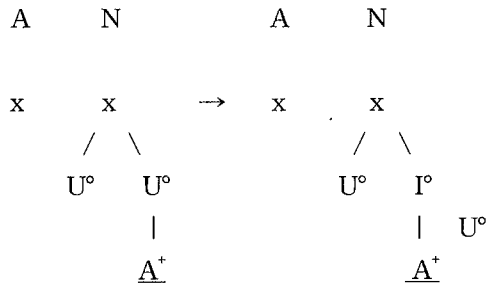
6) 경이중모음은 하나의 접점에서 분지되므로 중이중모음의 지배관계와 반대방향으로 지배 관계가 형성된다.



ex : kor(cor) > ... > kuor

전설 중저모음 ε의 변화와 달리 ɔ는 9세기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겪는다.

uo > uε > uœ > œ
 kuor > ... > kœr



uo는 이화 작용을 겪게되는데 ɔ의 élément U°가 élément I°로 바뀌게된다. 즉 후설에서 전설로 segment가 변한다. 이때 élément U°는 완전히 탈락되지 않고 élément ambient⁷⁾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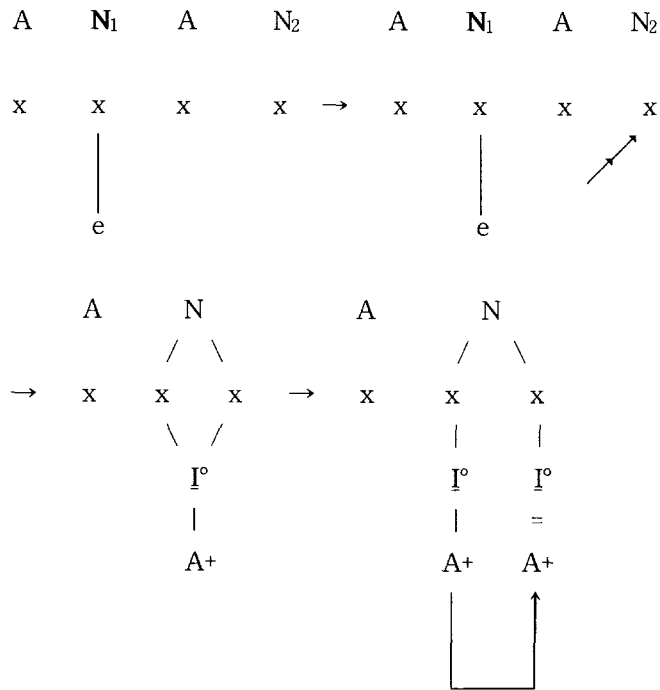
태로 남게 되어 그 후에 다시 첨가된다. 이 경우 élément U°는 이 segment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원순성을 첨가하는 역할을 한다. 지배 위치에 놓이게 된 élément U°는 경이중모음의 피지배 위치에 있는 같은 élément U°를 탈락 시켜서 결국 단일 구조의 segment로 된다.

이 구조의 변화에서 후설 변화는 전설 변화보다 더욱 철저한 이화 작용을 거쳤음을 이해할 수 있다.

2.2.3. 전 후설 중저모음이 이중모음화(première diphtongaison) 한 후에 6세기경 중고모음도 이중모음화를 겪는다. 그러나 이때는 위의 경우와는 달리 두번째 요소가 변화한다.

전설 중고모음

e > e: > ee > 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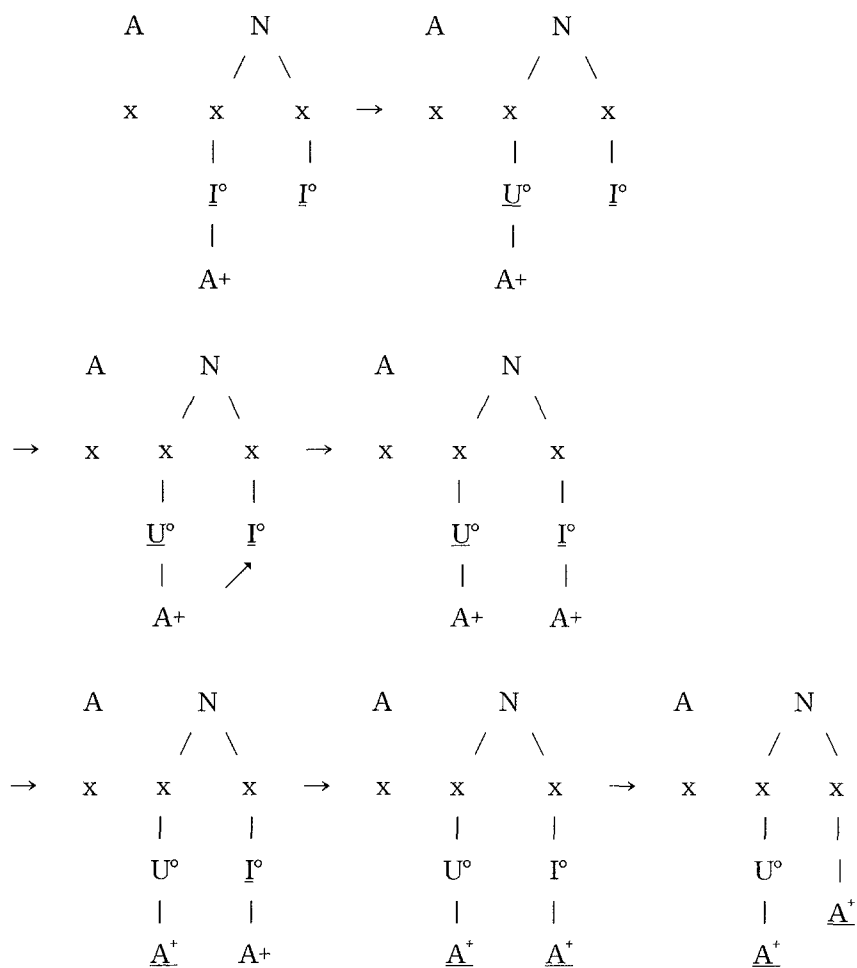
ex : me > ... > mei
tela > ... > te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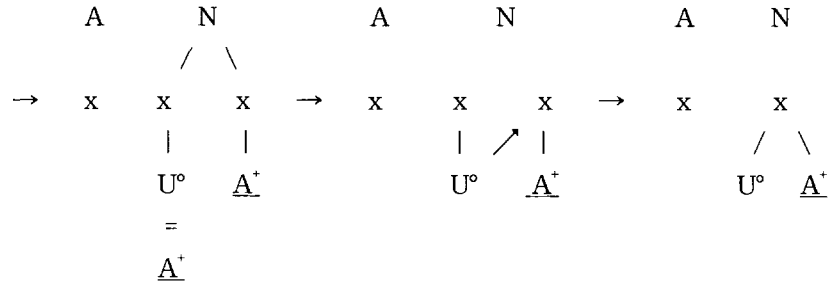
7) 한 segment의 내부 구조에서 나타나지 않던 élément이 그 segment 주위에 머물면서 언젠가 그 구조 속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élément을 élément ambient이라 부른다.

중고모음의 경우는 중저모음과는 달리 이화작용때 두 번째 segment의 élément이 탈락된다. 그 이전까지의 변화는 중저모음과 똑같으나 이화 작용때는 tête가 중성 charme인 élément I°이므로 앞의 segment가 아니라 뒤의 segment에서 élément이 탈락되게 된다. 그런데 양자 모두 tête이던 아니던 élément A+가 탈락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 경우에는 중이 중모음을 이루는데 아무런 지배상의 결합이 없다. 이상에서 양성 charme이 tête가 될 경우 지배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우위에 놓이지 않으면 오히려 지배에 장애가 됨을 알 수 있다.

전설 중고모음도 9세기 이후 계속적인 변화를 겪는다.

ei > oi > oe > uε > ua > wa
 mei > ... > mwa (moi)
 teila > ... > twale (to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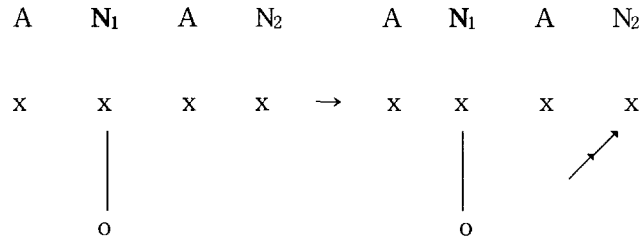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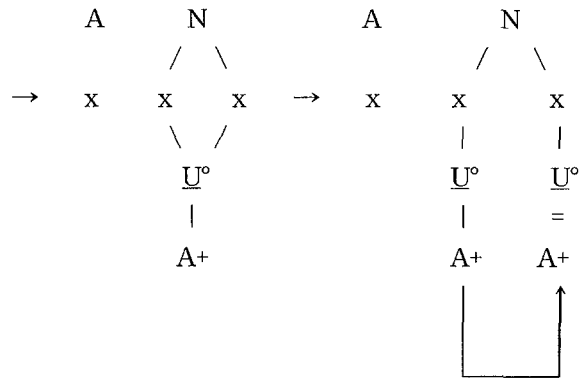
위의 변화 과정에서 보듯이 ei는 이중모음화된 것 중에서 가장 심한 변화를 겪는다. 양요소에 같은 élément I°가 있으므로 이화작용을 겪어서 élément I°가 élément U°로 대체된다. 그리고 e의 élément A+가 i로 전파되어 i는 e로 변한다. 그 후에 양 segment는 점차로 열리게 되어 tête가 A+로 이동한다. 그 후에 ε는 더욱 열리게 되어 élément I°를 탈락시킨다. 이 구조는 전자가 후자를 지배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전자의 charme 값이 후자에 비해 열악하므로 지배가 불완전하게되어 결국 o는 그의 tête를 탈락 시키고 후자의 점점으로 전파되어 경이중모음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2.2.4. 후설 중고모음

후설 중고모음도 9세기까지는 전설 중고모음과 같이 장음화에 이은 이화 작용에서 두번째 요소가 변화하므로 같은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그 이후의 변화는 전설 중고모음에 비해 훨씬 단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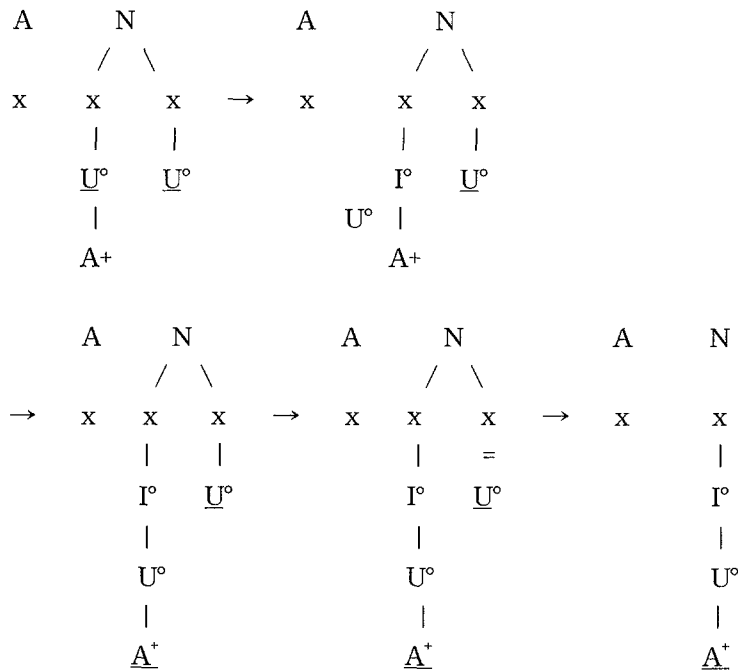
o > o: > oo > ou





ex : flore > ... > flour

이 모습도 9세기 이후에 계속 변화를 겪는데 결국 ɔ의 변화와 비교해 볼 때 변화의 성격은 다르지만 형태상으로 거울 경상규칙(image de miroir)과 같은 상호 대칭적인 모양을 이루며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이중모음의 내부 구조에서 전후의 élément들이 바뀌었을 때 지배의 원리상 중이중모음의 구조로 바뀐다.



flour > ... > floer(fleur)

ou에서 o는 이화 작용에 의해 u와 같은 élément U°를 잃고 élément ambient 인 élément I°를 얻는다. 이 후 élément U°는 완전히 탈락되지 않고 다시 내부 구조에 편입되어 전설 원순 모음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엔 u의 élément U°가 탈락되어 단일 구조의 segment로 변한다.

2.3. 이중모음화는 주강세를 갖는 열린 음절에서만 일어나는 변화이다. 따라서 아래의 예에서처럼 주강세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음절이 닫혀있다면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⁸⁾

- 1) i. mo/rit > meurt, fe/rum > fier
- ii. mor/tem > mort, fer/rum > fer

그러나 라틴어에서 불어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주강세를 갖고 있는 개음절이 폐음절로 변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모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2) mērolo (merulu) > mērlə > mērl
- omene (homine) > omnə > om

2)에서와 같이 한 단어 내부에서 모음이 소실된 변화를 어중음 소실(syncope)이라고 한다.

이러한 어중음 소실 현상은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인 모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데 post-tonique인 proparoxyton의 pénultième로부터 prétonique과, paroxyton의 마지막 음절까지 차례로 일어나게 된다.

이 세가지 유형의 어중음 소실 현상중에서 음절을 entraver하는 것은 첫번째와 세번째 유형이다.

2)의 예들은 이중모음화와 어중음 소실 사이의 시간적 상관관계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이 예들은 주강세를 가지고 있는 열린 음절들로서 이중모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osttonique에서 어중음소실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이중모음화 보다 어중음소실 현상이 먼저 일어 났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어중음소실 현상이 이중모음화의 적용 조건을 파괴함으로써 그것을 출혈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aroxyton 의 마지막 음절에서는 이중모음화가 어중음 소실보다 먼저 일어나므로 이 두현상은 비슷한 시기에 서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8) 하나의 음절이 개음절이나 폐음절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음 연쇄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V₁C₁C₂V₂... 연쇄에서 V₁의 개폐 여부는 단순히 C₂의 존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C₂가 C₁을 지배 할 수 있을 경우(gouvernement transsyllabique)에만 V₁이 폐음절이 되는 것이다. 만약 C₁이 C₂를 지배할 경우(gouvernement syllabique)에는 이 두 자음은 attaque branchante를 이루게 되므로 V₁을 entraver 할 수 없게 되어 V₁은 열린 음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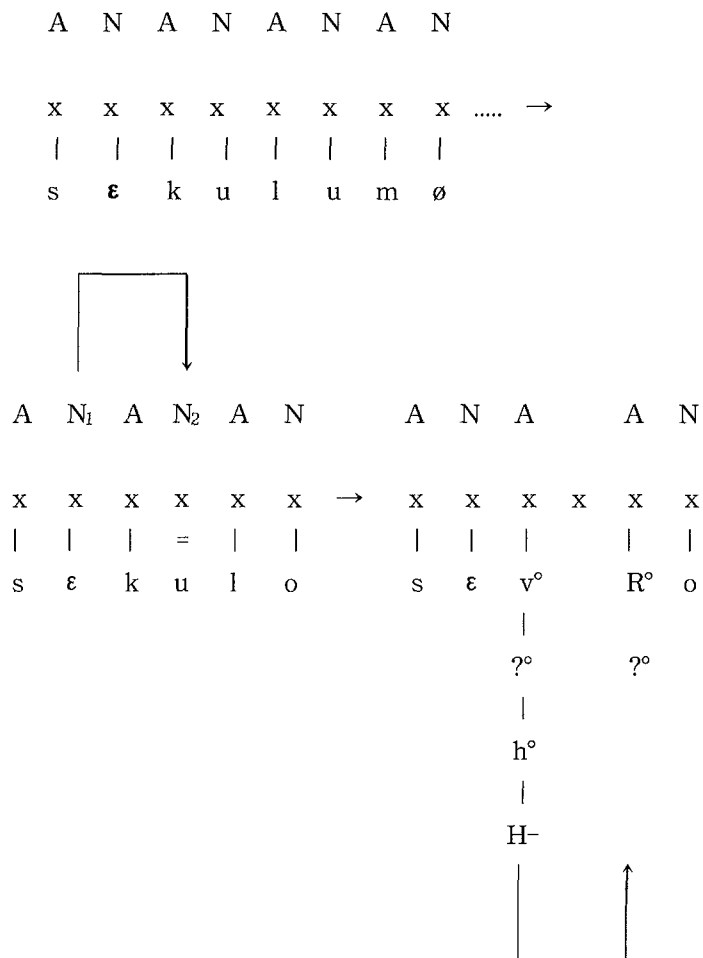
또한 어중음 소실이 일어났다고해서 이중모음화가 반드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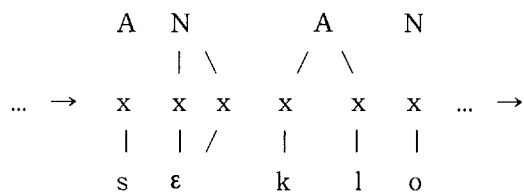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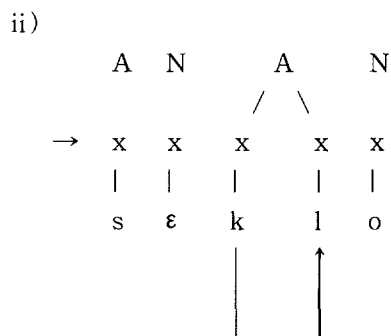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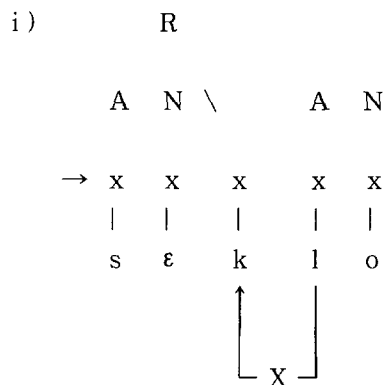
2.3.1. 1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서 어중음 소실을 겪었던 3)의 예를 살펴보자.

3) sɛkulum (seculum) > sɛklo > ... > siècle
 ɔpra (opera) > ɔpra > uɔpra > ... > œvrə

3)의 예는 유음 환경에서 어중음 소실이 일어났음에도 이중모음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3)의 내부구조를 살펴보자.





(이 후의 과정은 ε가 이중 모음화하는 2.2.1의 설명과 같음)

N_1 은 주강세를 갖고 있는 모음이므로 posttonique의 위치에 있는 N_2 를 적정지배 (gouvernement propre)하여 N_2 의 segment 가 탈락하게 된다. 이때 N_2 의 양 옆에 있던 두 attaque가 인접하게됨으로 해서 지배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i)은 음절간지배(gouvernement transsyllabique)의 구조이고, ii)는 음절내지배(gouvernement syllabique)의 구조인데 위에서 보듯이 segment l이 segment k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i)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고 ii)만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따라서 주 7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자유연쇄 kl 앞에 있는 segment ε는 열린 음절이 된다.

즉 이 경우 어중음소실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중모음화의 적용 환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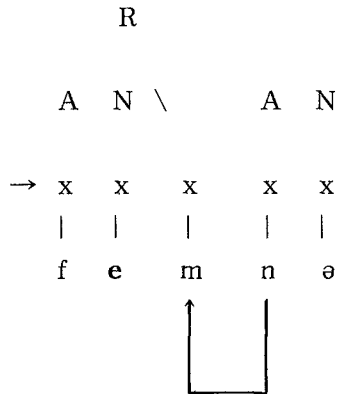
파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segment ε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중모음화의 변화를 겪게 된다.

2)와 3) 예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양 변화의 상관관계가 segment 사이의 지배 피 지배 관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2. 3세기 중반부터 유음의 환경이외에 비자음의 환경에서도 어중음 소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 4) femena (femina) > femna
- omene (homine) > omne

이 경우는 같은 비모음이므로 즉 같이 charme neutre의 값을 갖고 élément의 수도 같으므로 n이 m을 지배하기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경우는 3)의 i 과 같은 내부 구조를 갖게 된다.⁹⁾



이 구조는 n이 m을 지배하는 성분간 지배를 이루므로 m n의 연쇄 앞에 있는 모음 segment가 m에 의해 entravé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e는 이중모음화를 겪지 않는다.

2.3.3. 어중음 소실 현상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이루어진 paroxyton의 환경에서는 이중모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

9) 자음 연쇄에서 이웃한(adjacent) 두 segment가 charme 값이 같고 élément의 수도 같을 때는 예외없이 성분간 지배(gouvernement transsyllabique)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segment가 뒤에 놓인 segment에 의해 내파(implosion)됨으로써 그의 élément 중의 일부를 소실하기 때문이다.

III

지금까지 라틴어에서 불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음운변화를 모음변화인 이중모음화와 어중음 소실을 중심으로 그 내부 구조의 변화를 추적해보았다.

로마를 중심으로한 소수 라틴족의 관용어였던 라틴어가 로마의 세력 팽창과 더불어 지중해 세계의 광대한 복속 지역에서 그 지방의 관용어들을 점차 구축하고 헬라어와 더불어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서, 복속된 민족들은 자기 고유의 억양을 버리지 못한 채 라틴어를 발음하게 되어 그들 나름대로 가장 최소의 노력을 들여 편리하게 라틴어를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을 띠게 되고 이것은 라틴어에서 로망어로 진화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여기서는 바로 이러한 음성적 변화의 양상을 지배 음운론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하나의 언어를 완전히 다른 구조의 언어로 변화시킨 출발점은 음성적 변화인데, 이 변화는 주로 1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분석했던 이중모음화와 어중음 소실도 이 시기에 일어났던 변화들이다. 라틴어에서 불어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음운변화 중에서도 이 두변화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이들이 언어 체계의 중심이되는 모음변화라는 점도 있지만, 원래 라틴어에는 풍부했던 이중모음들이 불어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전부 소멸되거나 경이중모음화한 현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변화를 분석해가면서 우리는 인접한 모음끼리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강화와 약화를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내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도 구조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통시적인 변화의 추이도 분절음의 지배 피지배의 상관 관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았고 따라서 어느정도 변화가 지향하는 방향의 필연성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수많은 변화들 중에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들도 많기에 그러한 것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겠다.

BIBLIOGRAPHIE

1. 지배음운론 분야

- Charette, Monik(1988), *Some constraints on governing relations in phonology*, Ph.D.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 Harris, John (1990), "Segmental complexity and phonological government", *Phonology* 7: 255-300.

- Kaye, Jonathan(1989b), "Coda licencing", Ms. SOAS-University of London.
- Kaye, Jonathan(1992), "Derivations and Interfaces", *Phonologie Yearbook*:90-126.
- Kaye, Jonathan, Jean Lowenstamm & Jean-Roger Vergnaud(1985), "The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a theory of charm and government", In *Phonology Yearbook Vol.2*: 305-328.
- Kaye,Jonathan, Jean Lowenstamm & Jean-Roger Vergnaud(1987), "Constituent structure and government in phonology", *Paper presented at GLOW meeting*, Venise.
- Shohei, Yoshida(1990), *Some aspects of governing relations in Japanese phon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장재성(1994), 『불어의 자음 연쇄의 내부 구조』, 서울 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연구소
- 장재성(1996), 「불어의 음운론적 지배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2. 통시분야

- Bourciez, E. et J.(1982), *Phonétique française*, C. Klincksieck, Paris.
- Brunot, Ferdinand(1966), *Histoire de la langue française*, Armand Colin, Paris
- Carton,Fernand(1974), *Introduction à la phonétique du français*, Bordas, Paris
- Chaussée, François(1982), *Initiation à la phonétique historique de l'ancien français*, Klincksieck, Paris.
- Chen, U.F(1973), *Essai sur la phonologie française*, Nizet, Paris.
- Ernout, Alfred(1974), *Morphologie historique du latin*, Klincksieck, Paris
- Maniet, Albert(1975), *La phonétique historique du latin*, Klincksieck, Paris
- Martinet, André(1973), "La palatalisation du roman septentrional",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11.
- Picoche, Jacqueline(1979), *Précis de morphologie historique du français*, Fernand Nathan, Paris.
- Serbat, G.(1980) *Les structures du latin*, Edition a. & J., Picard, Paris.
- Straka, Georges(1965), "Naissance et disparition des consonnes palatales dans évolution du latin au français",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3.
- Wartburg, W.v.(1971), *Evolution et structure de la langue française*, A. Francke AG Verlag Bern.

■ Résumé

Aspect gouvernemental des changements phonétiques du latin au français

CHANG Chae seong

Le français appartient au groupe des langues romanes. Il est, dans son fond essentiel, une transformation du latin. Alors que le latin, ancêtre du français, était une langue flexionnelle, le français moderne ne connaît plus la déclinaison.

A Rome, une distinction s'établit avec le temps entre le latin classique (*sermo urbanus*) dont se sont servis les écrivains et le latin vulgaire (*sermo plebeius*) dont usait le peuple. Ces deux formes du latin en sont venues à diverger assez profondément entre elles par leur prononciation, leur syntaxe.

C'est du latin vulgaire que sont sorties les langues romanes dont le français s'est développé dans la région Gaule.

Mais le latin vulgaire, importé dans la région Gaule, a subi l'influence de nouveaux envahisseurs germaniques, et en particulier celle des Francs.

En parlant le latin avec leur accent germanique, les Francs de la région parisienne ont modifié l'apparence de cette langue et contribué à donner son allure générale au parler de l'Ile-de-France, qui est à la source du français actuel.

Du latin au français, le point de départ des changements était le changement phonétique dont la diphthongaison et le syncope, que nous avons analysés, se sont produits du premier siècle au sixième siècle.

Nous prêtons attention à six facteurs dans les changements phonétiques du latin au français : accent du latin (il était originellement accent de hauteur, mais il est devenu accent d'intensité), position des segments dans un mot, environnement des segments, caractère des changements, éléments changés (au sens de la théorie de Kaye, Lowenstamm, Vergnaud), temps où se sont produits des changements.

Avec ces six facteurs, nous avons analysé deux changements vocaliques d'après la théorie de KLV, qui a pour but d'expliquer tous les phénomènes phonologiques par des compositions et des décompositions des éléments.

Cette théorie nous fait voir qu'il y a une unité dominante d'une certaine forme en relation avec une ou plusieurs unités subordonnées dans tous les phénomènes phonologiques. KLV appellent cette relation le gouvernement. Il est défini comme la relation binaire et asymétrique, maintenue entre deux segments adjacents. Cette relation gouvernementale est considérée comme le motif principal des processus phonologiques.

Ce qui veut dire que tout processus phonologique comporte toujours la motivation pertinente par laquelle on élimine la relation arbitraire entre le processus phonologique et l'environnement dans lequel il se produit.

En analysant les deux changements vocaliques, diphtongaison et syncope, nous avons vérifié que le processus des changements diachroniques dépend aussi de la relation entre le gouverneur et le gouverné dans la structure interne des mots. Nous avons aussi essayé de répondre à la question: pourquoi les segments subissent sans cesse des changements. C'est pour obtenir la stabilité de la structure interne des mots qui ont subi l'influence des environnements historiques et sociaux.

